

MOVE

MOVE
BY STORY
VOL. 09

20130330

당신을 흔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 Racing the Planet

INDEX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지상의 끝에서 만나는 도전, 극지 여행 친구 - 세상의 끝에서 시를 읊었다, 달리는 청춘 윤승철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미도리 최미도
MUSE	일상 도전 별곡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09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3월 3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정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민지홍
사진촬영	윤승철, Racing the Planet, 퀸즈랜드주 관광청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팅스북스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갤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손미나의 여행사전

한 달에 세 번, 귀로 듣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여행지 테마



MARAIS

영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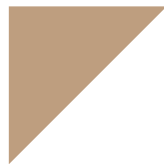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희극 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지상의 끝에서 만나는 도전,

극지
9회 with 윤승철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BORMES-LES- MIMOSAS

7회 with 이영미

노란 맥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보-레-미모자 마을



SICILIA ISLAND, ITALY

8회 with 김수로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손미나의 여행 사전 지상의 끝에서 만나는 도전, 극지

스토리텔러 선민정 — haneul@bombaram.net

항무지를 걷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 곳을 걷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고 내 살아있음의 증거일 것이다.
말하고, 걷고, 숨쉬는 그 모든 것만으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주체가 되었을 때,
오직 그 순간에만 나는 존재한다.

- <이름이 없는 너를 부를 수 없는 나는> 김태형 산문집 中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다. 모든 순간 선택과 결정을 강요당하며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상의 끝으로 떠나는 도전은 무모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이 될지도 모르겠다. 극지로 가는 것이 도전이든 휴식이든 간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세계 4대 사막 마라톤



매력포인트 1

세계 최대의 사막, 사하라 사막 Sahara Des.

사막(沙漠, 모래 사, 사막 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흔히 사막을 모래 지역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하라 사막조차도 모래 지역은 10~20퍼센트에 불과하고 대부분 풍화성 암석과 자갈로 덮여 있다. 이처럼 사막은 산과 고원, 평원 등을 포함한다. 아랍어로 불모의 땅이라는 뜻인 사하라 사막은 907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의 90배가 넘는 규모로 아프리카 대륙면적을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발전이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사하라 사막 여행을 위해 북아프리카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섭섭한 말씀. 지중해만 건너면 유럽이 있는 탓에 유럽의 느낌은 물론 아프리카와 사막 고유의 특색, 게다가 이슬람 문명까지 공존하는 사하라 사막은 여행자에게 분명 매력적인 곳이다.

Storyteller's 사하라: 불모의 땅(Sahra)이 지금은 태양열 발전 성지로 변했다고 하니 세계 최대의 사막으로서의 명성은 앞으로 백년 이상은 거둔다





© Racing the Planet

매력포인트 2

극도의 건조, 아타카마 사막 Atacama Des.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아타카마. 최근 100년간 단 한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곳도 있다. 그 탓에 몇 천 년 전에 죽은 동물과 식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햇빛에 구워진 채로 남아있다. 역겹의 세월은 지형에도 나타난다. 강수량이 적어 호수와 소금의 퇴적층으로 덮여 분지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 곳은 달의 지형과 흡사해 미국 나사에서 우주 탐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실험하기도 하고 영화 촬영장소로도 쓰인다. 특히 달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의 석양은 일품이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Storyteller's 아타카마: 다른 행성을 걷는 기분이 드는 아타카마 사막이야말로 오늘 이 지구가 지겨운 당신에게 여행지로 안성맞춤.

매력포인트 3

거친 땅, 고비 사막 Gobi Des.

사막이 모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모든 사막이 타들어가는 더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겨울이 되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곳이 바로 이곳, 고비 사막이다. 고비란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으로, 암석 사막이며 넓은 초원지대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사막인 이 곳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기온과 강한 바람 탓에 유목민들조차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Storyteller's 고비: 이곳에 가면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유머를 남발하게 될 것이다.





남극 레이스를 마치고
<손마녀의 여행사건> 현수막을 든 윤송철 군.

매력포인트 4

영하의 극한, 남극 The Antarctic

빙하와 눈으로 뒤덮인 남극이 사막이라니 저절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사실 사막의 기준은 얼마나 건조한가에 달려있는데 남극은 사하라 사막보다 연 강수량이 적은 한랭사막이자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다. 겨울에는 영하 7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이 곳은 눈보라가 심한데다 사방이 온통 백색이라 방향 감각이 없어지는 화이트 아웃 현상도 일어난다고 한다. 이 때문에라도 연구목적 외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외교통상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막들에 비해 여행가는 것 또한 쉽지 않다.

Storyteller's 남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에게 남극 여행에 도전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그들에게 화이트 아웃 현상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력포인트 5

인간의 한계, 마라톤

극지 여행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거나 너무 멀어서 망설여진다면 마라톤에 도전해 보길 권한다. 마라톤을 통해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는 것은 극지를 가는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라톤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자 도전이기 때문이다. 혹시 아는가? 러너스하이(runner's high)를 느끼게 될지. 42.195킬로미터는 중요하지 않다. 뛰다가 힘들면 걸으면 되고 걷다가 힘들면 잠시 쉬어가면 된다. 충분히 쉬었으면 다시 도전하라. 인생과 여행은 다르지 않다.

Storyteller's 마라톤: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당신에게 마라톤은 연감생신, 그저 걷다보면 언젠가는 결승선에 도착하기 마련이다.



Gold coast
Airport Marathon.



여행 친구

세상의 끝에서 시를 읊었다 달리는 청춘, 윤승철

스토리텔러 김정예 — puri@bombaram.net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무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행도 그렇다. 정해진 길, 누군가 한 번은 머물렀던 곳으로 떠나는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도 좋지만 여행의 본질은 어쩌면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막과 남극이라는 지구의 극지를 오로지 달려 보고 싶다는 꿈 하나에 의지해 뛰어난 윤승철 씨의 여행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가 세상의 끝에 남긴 1,250킬로미터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동안 당신의 심장은 뜨거워지고, 발바닥은 간지러워질 것이다.

Q. 손미나 작가와 어떻게 알게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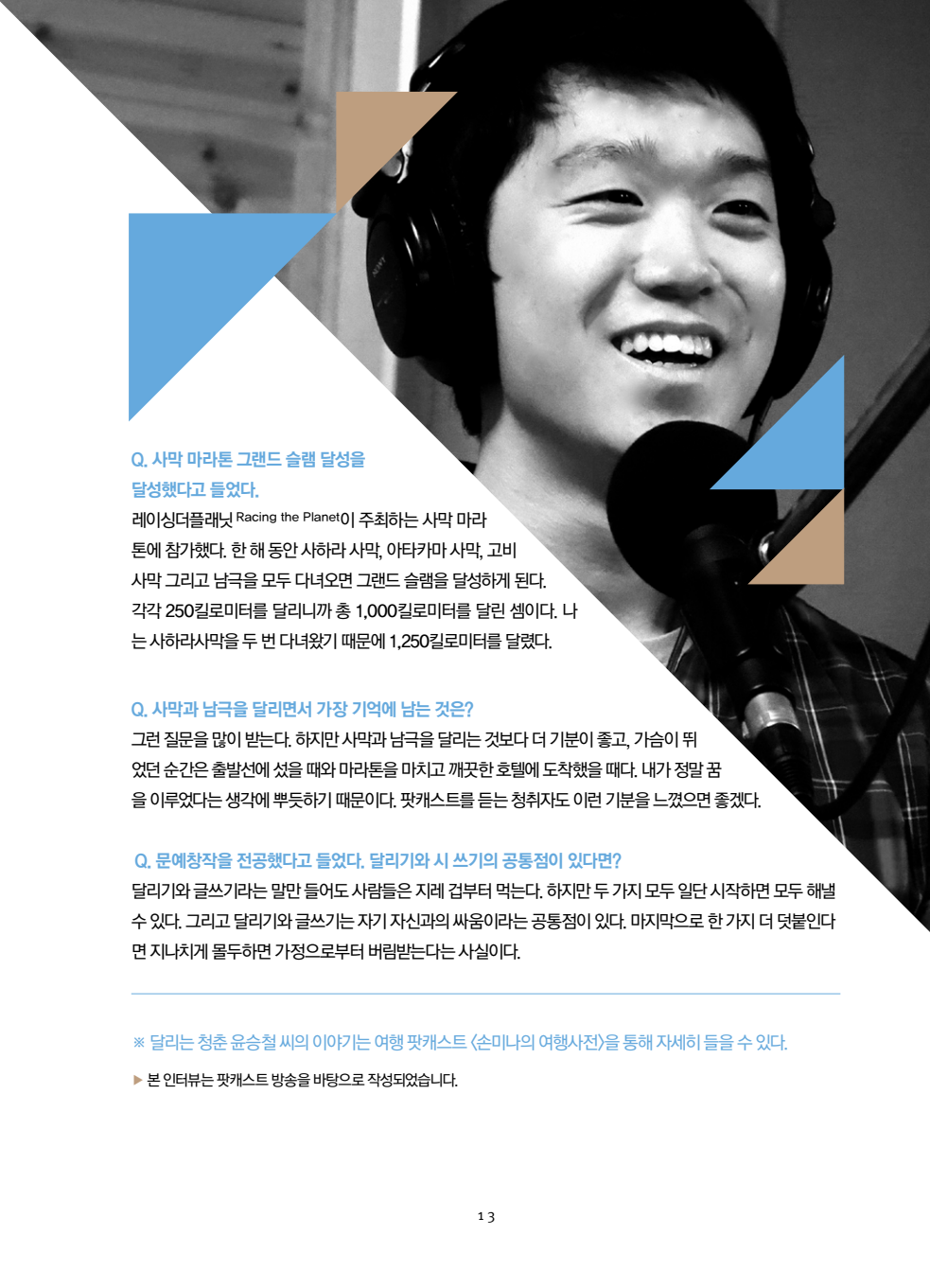
골든벨에 출연했던 학생들은 골맷사(골든벨이 맺어준 사람들)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인연을 이어간다. 나 역시 골든벨에 출연했고, 친한 형이 골든벨 왕중왕 출신이었다. 그 형을 따라 우연히 미나 누나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 사막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는데, 그 자리에서 선뜻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다.

Q. 사막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중학교 때 큰 사고가 났었다. 4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했고, 병원에서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준비과정 오래 걸렸다. 1년간 꾸준히 운동했고, 해병대에 지원해 복무하면서 체력을 길렀다.

Q. 왜 하필이면 사막을 달리고자 했나?

두 가지 버전의 대답이 있다. 거창하게 말하면 한계를 알고 싶었다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막을 달리는 사진을 보고 필이 꽃혔다. 멋진 유럽의 풍경을 보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막을 달리는 사진을 보고 나도 하고 싶다고 느꼈을 뿐이다.



Q.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 달성을 달성했다고 들었다.

레이싱더플래닛 Racing the Planet이 주최하는 사막 마라톤에 참가했다. 한 해 동안 사하라 사막, 아타카마 사막, 고비 사막 그리고 남극을 모두 다녀오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각각 250킬로미터를 달리니까 총 1,000킬로미터를 달린 셈이다. 나는 사하라사막을 두 번 다녀왔기 때문에 1,250킬로미터를 달렸다.

Q. 사막과 남극을 달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사막과 남극을 달리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고, 가슴이 뛰었던 순간은 출발선에 섰을 때와 마라톤을 마치고 깨끗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다. 내가 정말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 때문이다.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도 이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

Q. 문예창작을 전공했다고 들었다. 달리기와 시 쓰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달리기와 글쓰기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지레 겁부터 먹는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일단 시작하면 모두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달리기와 글쓰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나치게 몰두하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다.

※ 달리는 청춘 윤승철 씨의 이야기는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미도리 최미도 무익하고 무모했던 도전이 모여 내 인생의 별자리가 된다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IQ 150이 넘는 예민하고 명민한 기획자, 대학 시절부터 전세계 35개국을 살살이 여행한 모험가, 작은 인연에도 사심 없이 정성을 들이고,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다국적 친구들과 가족이 되는 따뜻하고 섬세한 의리파. 현재 중국 베이징 LENOVO 본사 IDC(Innovation Design Centre)에서 CMF(Color, Material and Finishing design)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복경 생활 3년째에 접어든 최미도 씨를 만나기 위해 중국 행 비행기를 탔다.

미도씨를 처음 알게 된 건, 벌써 십 수년 전. 당시 제일기획 직원이었던 나는 회사의 요청으로 대학생 기자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특강을 진행했는데, 미도씨는 그때 참가한 수십 명 가운데 가장 초롱초롱하게 경청했던 학생으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유일한 인연이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경력이 제법 되는 어엿한 전문가로 성장해 다국적 동료들과 함께 Ultrabook(Laptop)과 Horizon(Tablet PC) 등 레노버의 대표 제품을 디자인했고, 최근에는 ThinkPad의 CMF 전략을 담당해 미래의 프리미엄 디자인 방향을 설계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독보적인 컬러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북경대 앞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3박 4일을 지내는 동안 함께 '798예술단지'도 둘러 보고, 전세계 작가들을 초청해 독특한 아날로그 책공간에서 독자와 만나는 북 페스티벌에도 참여했다. 그녀의 안목으로 고른 베이징의 멋진 건축물들도 부지런히 찾아 다니고,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는 그녀를 따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 정도로 험퍽이며 승효상 건축가를 비롯, 아시아 각국의 대표 건축가 12인이 조성한 Commune by the Great Wall을 지나 만리장성에도 오르면서 도대체 그 가늘픈 몸 어디에서 이처럼 대범한 에너지가 흘러 나오는 것인지 신기했고, 그녀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

녹색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녀의 닉네임은 일본어로 '초록'을 뜻하는 '미도리(緑)'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디자이너가 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초록색은 물 조절도 어렵고 왠지 도화지에 잘 담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쉽게 다룰 수 없는 자연의 색에 더 매력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취향을 표현하는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세상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만화책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이은혜 만화가의 <점프트리A+>에 나온 한 대목은 가슴을 울렸다. “핑크색 하트로는 단 한 명을 사랑해 주고, 초록색 하트로는 전세계의 모두를 사랑해줄 수 있어!”

홍익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과 건축공학을 함께 공부하고 삼화페인트에서 컬러리스트로 5년 반을 일한 뒤 베이징으로 넘어간 그녀는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지랖이 넓고, 쓸데 없는 데 몰두한다.”는 애기를 들을 정도로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많다. 흥미가 생기면 깊이 몰입하고 두려움 없이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그녀에게 도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생활이다. “지나고 보면 무익하거나 무모한 일은 없는 것 같다.”는 그녀는 자기만의 깊은 우물과 가장 빛나는 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익하고 무모했던 작은 도전들도 서로서로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인생의 큰 별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한다. 그것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퍼즐 한 조각처럼 아무리 사소한 인연도, 스쳐가는 경험도 어느 하나 무의미한 것은 없다고 믿는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에 정성을 들인다. 그래서 그녀의 별자리는 사막의 우물처럼 아름다울 것 같다.

※을여름에 미도리와 함께 '만리장성에서 별보기'에 도전하고 싶다면 midori.mido@gmail.com으로 연락하세요.

미도리가 제안하는 무브꺼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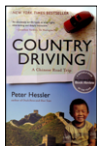
1. 중국다운 삶의 축소판, 코미디 로드무비 《Lost on Journey》

‘人再囧途Lost on Journey’는 중국다움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중국 본토 영화다. 직역하면, ‘슬픔의 길 위에 있는 사람’ 정도가 되겠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두 남자가 중국의 춘철 대이동 시기에 우연히 만나 얽히고설키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여우극 절의 여정을 담은 코미디 로드 무비로 무엇보다 재미가 있다.



2. 중국어 초보자에게 권하는 예쁜 그림책, 《Missing My Cat》

대만 작가 幾米(지미)의 ‘遺失了一只猫Missing My Cat’은 ‘잃어버린 한 마리 고양이’의 이야기다.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파란 점박이 고양이를 찾아나선 주인공이 고양이를 찾는 동안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서정적인 일러스트와 울림 있는 이야기로 그렸다. 특히 중국어 초급과정을 막 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3. 중국에서 자동차 여행을 하고 싶다면, 《Country Driving》

뉴욕타임즈 등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작가 Peter Hessler는 7년동안 베이징에서 일하면서 중국 곳곳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그의 책 ‘COUNTRY DRIVING-A Chinese Road Trip’에는 베이징에서 외국인인 자동차 면허를 따고 차를 구하는 방법부터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여행하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4. 내 여행가방의 1kg을 기부하는 《1kg More》 프로젝트 참여하기

중국의 사회적 기업인 엔드류 위는 여행자들이 자신의 여행가방에서 1kg만 양보해 오지 학생들에게 책과 문구 등 학습도구를 선물하자는 《1kg Mor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2006년부터 여행자와 지역학교를 연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www.1kg.org)를 중심으로 1만명 이상의 오지 학생들을 도왔다.

5. 이번 여름 휴가는 미도리와 함께 만리장성에서 별 보기!

베이징 후퉁(골목) 중 가장 유명한 난뤄구상(南锣鼓巷)에 위치한 Beijing Downtown Backpacker Hostel에서는 매년 7~8월에 만리장성에서 캠핑 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만리장성에서 여름 밤 하늘의 별을 보는 프로그램은 매력적이다. 여름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가장 베이징다운 것과 만리장성의 새로운 매력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미리 예약해두자.



MUSE

일상 도전 별곡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도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 머뭇거렸다면, 그것은 결코 자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다. 그 '해야 할 도전'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이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희미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비롯해 '도전'을 권하는 이 사회의 홍수 속에 무작정 휩쓸려가고 있던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히 도전이라는 단어, 하도 남발되는 바람에 내성이 생겨 잘 먹혀들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근히, 그리고 꾸준히 권유당하고 있다.

'도전', 낯설게 보기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실제로도 우리네 인생에서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룩해 온 것도 사실이다. - 다만, 이것이 학습효과 탓인지 '진짜 나'에 의한 것인지 내면 깊숙이 파봐야 한다. 우선 내성이 생겨버린 도전이라는 막연하게 큰 덩어리를 작은 일상부터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주변을 탐독하기로 한다.

일상도전자 발굴하기

거대한 것을 이겨내는 것만이 도전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도전하고 싶은 진짜 그것은 일상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변에서 일상 도전자를 발굴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며 도전의 범주를 재정립해 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인터뷰한 일상도전자(4인)와의 질의응답이다.

익명 인터뷰이를 A, B, C, D로 칭한다.

Q. 지금 진행 중인 도전은 무엇인가.

A: 기상.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 도전이다.
B,C,D: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Q.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무엇인가.

A, B: 고수하던 스타일을 과감히 바꾸는 것.
B: 결혼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전이었다. 오로지 내가 평생을 걸고 하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도전. 평생을 거는 도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C: 처음으로 부모님과 따로 멀리서 사는 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Q. 어려워서 아직 도전하지 못한 것은?

A: 상사나 동료, 후배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 (무엇을?) 진실과 사실을 과감히 말하기.
C: 휴가를 당당히 쓰는 것.
D: 좋아하는 사람을 잇는 것.

Q. 앞으로 하고 싶은 도전은?

D: 없음. 더 이상의 도전이란 단어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 게 나의 도전이다. 사람들은 정복하기 위해 산에 오른다. 정복하려는 순간부터 자유롭게 못한 것. 단어에 얽매이는 순간 도전이 아닌 거다. 도전은 자본주의 시대가 우릴 움직이게 하려고 팔아먹은 단어다. (인터뷰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도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비로소 끝이 난다. 일상 도전자들은 불가능한 도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만큼 자신이 견딜만한 무게만큼의 도전을 이야기했다. 사소하지만 일상의 한계를 부수기 위해 이들은 오늘도 눈을 깜박인다.

한계 말고, 딱 '한 개'만 깨부수기

도전에게 있어 가장 강한 내성은 '나 자신의 한계를 부순다'는 진부한 문장이다. '진짜 나'의 도전을 마주하려면 자신의 외부와 내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 쉬운 팁을 주자면, 정말 내가 원하는 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그 도전의 범주를 감당할 만큼 잡은 것일까를 고려하면 된다. 그러므로 남들이 포장해 놓은 단어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남의 도전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버려야 할터. 나만의 도전을 찾고 이루기 위해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어려운 한계가 아닌 쉬운 한 개만 정해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위풍당당한 도전자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마크 트웨인은 "앞으로 20년 후 당신이 한 일보다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후회스러운 것들을 내뱉어도 좋다. 도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한니까. 일상의 나와 맞서며 살아가는 우리는 좋은 싫든 모두 위대한 도전자다.



책을 통한 가족의 교감! 8가지 책 놀이 방법론 수록!



『책 놀이 책』

가장 오래된 장난감, 책으로 행복 찾기

오승주 지음 | 김라연 그림 | 248쪽 | 15,000원

▶ 책 소개

강남의 눈술 강사로 일하면서 느낀 역설적인 깨달음과 '책요정'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책으로 완성되었다. 사교육에 길들여져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고민을 동시에 마주하며 책으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장난감인 책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벽을 허물고, 자존감을 높이는 행복한 책 놀이를 소개한다.

▶ 책의 구성

Point 1.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다규 동화 스토리텔링

책 놀이를 통해 행복을 되찾은 가족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규 동화로 구성하여 친근하게 소개

Point 2. 책 놀이 방법과 책 놀이에 필요한 도구 수록

독자가 직접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도구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

Point 3. 책 놀이에 적합한 추천 도서 소개

8가지 책 놀이에 가장 효과적인 추천도서를 저자의 안목과 책 놀이 실행 경험을 통해 선별함